

영양지식, 식품기호 그리고 식행동에 나타난 남, 녀 차이에 관한 연구

강남이 · 정혜경*

서울보건전문대학,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A Study on the Sex Bias in the Nutrition Knowledge, Food Preference and Food Roles in the Family

Nam-E Kang · Hae-Kyung Chung*

Dept. of Food and Nutrition, Seoul Health Junior College

*Dept. of Food and Nutrition, Hoseo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was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sex bias in nutrition knowledge, food preference and food roles in the family. 152 couples living in Seoul, Cheonan in the 20s~60s were selected for this research as subjects from October 1 to December 20, 1991. The data analysis was made by way of frequency, percentage, χ^2 -test using SPSS package.

The summarized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survey on the sex bias in nutrition knowledge related heart disease on the subjects showed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But women had a relatively good nutrition knowledge than men. Especially women had a good nutrition knowledge that low sodium diet and exercise are efficient on preventing heart disease.
2. On the food preference, the subjec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Men showed a relatively highest preference for protein food just as pork, fish, and tofu. Women showed a relatively highest preference for bread, fruit and vegetable.
3. On the food roles, the subjects showed that gender difference in household labor regarding food preparation still exist. Food-related activities are clearly still the domain of women in most families. Husbands and wives in younger families tended to think the husbands showed increase their efforts in food related activities.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빈번한 문화 교류로 인해 식생활의 많은 변화가 야기되었다.¹⁾ 식생활은 그 사회의 사회 문화적 소산으로 그 사회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식생활은 원래 그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의 하나인 배고픔이라는 기본적, 생

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대 사회에는 식생활을 통해서 건강의 증진, 미적 쾌감까지도 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식생활 패턴이 나타나고 있으며 식품기호, 식습관과 같은 새로운 식행동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들²⁻⁵⁾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서구 문화권의 부인들도 식생활에 관계된

행동을 포함하여 가구내의 일을 하여 왔으며 이는 중요한 sex-typing과 gender segregation을 형성하여 왔다.⁶⁾ 그러나 최근에 부인의 사회적 진출이 현저히 증가하면서 사회내 남자와 여자의 성역할에 많은 변화가 생겼고 식생활과 관계된 행동을 포함한 가사 노동을 남편과 부인이 많이 공유하게 되었다. Hertzler⁷⁻⁸⁾는 여성의 고용 증가는 식사 준비에 남편의 참여를 크게 요구한다고 하였다. Helmick⁹⁾는 가정 주부를 “gatekeeper”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낡은 발상이라고 하였다. 또한 가족 주기별로도 변화를 보여 나이가 적은 가구의 남편이 식품 구입과 식품비 결정에 많이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¹¹⁾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급격한 사회 변화의 과정속에서 식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식행동에 남녀의 역할변동이나 성 차이가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어려서부터 식생활 영위자로 인식되고 교육 받은 여성의 영양지식의 내용과 남성의 영양지식과는 어떤 차이를 보이며

둘째, 식품기호도에서도 남녀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며 셋째, 실제로 가정내에서의 식행동-식품구매 결정권, 조리담당자-에서 남녀간에 역할변동에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 보았다. 이때 남녀의 비슷한 환경하에서의 차이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므로 부부 집단을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식행동은 시대별로 변화의 양상을 띠므로 20대에서 60대의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현대는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영양편중과 불균형현상이 생겨나 비만증, 동맥경화증,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의 발병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¹²⁾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우리의 현 식생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올바른 영양 지도를 위한 영양 교육의 실시 측면이나 식품 기호에 대한 남녀 차이를 파악해 낼 수 있다면 유용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영양 지식, 기호도, 식행동의 남녀 차이를 분석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시기, 방법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서울 및 천안지역에 거주하는 20대에서 60대까지의 부부로 남자 152명, 여자 152명 총 304명이었다.

조사시기는 1991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조사방법은 20~60대의 부부를 모집단으로 단순임의추출법(simple random sampling)에 의해 설문 조사하였으며 설문항목은 조사자가 직접 면담을 통해 기입하였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부부의 식행동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과연 남녀의 차이가 있는가와 이러한 차이의 변화의 내용을 추정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의 내용을 3단계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첫째, 영양지식(nutrition knowledge)의 정도로 남녀 성 차이가 존재하는가?

둘째, 식품기호(food preference)에 남녀 성 차이가 존재하는가? 우리가 주로 섭취하는 5가지 기초 식품군을 중심으로 남녀간에 어떠한 기호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셋째, 식행동(food roles)에 있어서 남녀 성 차이가 존재하는가? 누가 식품 구매를 결정하고 실제로 구매하는가와 또한 조리를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와 실제로 조리하는가와 같은 식생활과 관련된 행동에 있어서 남녀간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살펴 보았다.

3. 자료 처리 방법

조사 결과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¹⁴⁾를 이용하여 평균 ± 표준편차, 백분율 및 t-test, χ^2 -test, Pearson correlation 등으로 처리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men and women

Characteristics	Number (%)	
	Men	Women
Age		
29 ro younger	11(7.2)	29(19.1)
30~39	44(28.9)	32(21.1)
40~49	37(24.3)	53(34.8)
50~59	53(34.9)	34(22.4)
60 or older	7(4.6)	4(2.6)
Education		
completed primary school	2(1.3)	18(11.8)
completed middle school	12(7.9)	20(13.2)
completed high school	62(40.8)	78(51.3)
completed college	76(50.0)	36(23.7)
Occupation		
unemployed	1(0.0)	124(81.6)
merchant	12(7.9)	20(13.2)
teacher	10(6.6)	4(2.6)
salaried man	54(35.5)	7(4.6)
skilled	20(13.2)	4(2.6)
etc.	12(7.9)	2(1.3)
Household income(won)		
500,000 or less	3(2.0)	3(2.0)
500,000 ~ 1,000,000	42(27.6)	42(27.6)
1,000,000~1,500,000	44(28.9)	44(28.9)
1,500,000~2,000,000	25(16.4)	25(16.4)
2,000,000 or more	38(25.0)	38(25.0)

조사대상 남자의 평균 나이는 44.7 ± 10.7 세였고, 여자의 평균나이는 41.6 ± 10.5 세였다. 이들의 교육수준은 남자는 대졸이 50.0%로 가장 많았고 여자는 고졸이 51.3%로 가장 많았다. 직업별 분포를 보면 남자의 경우는 회사원인 경우가 35.5%, 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36.2%였다. 부인의 경우 직업이 없는 경우가 81.6%, 있는 경우가 18.4%였다. 가구의 평균 월수입은 150만원이었다.

2. 영양지식의 남녀 차이

심장 질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발병율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으며¹²⁾ 심장병 위험요인과 식사와 life-style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15~17)}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분석의 목적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심장병 위험 요인과 관련된 영양 지식의 정도에 남녀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알기 위한 것이다.

심장병 예방과 관련된 영양 지식에 대해 조사 대상자가 얼마나 찬성하는가를 “strong agree” “disagree” “strong disagree”의 범주로 나누어 질문한 다음 chi-square analysis에 의한 유의성 검정을 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심장병 예방에 운동이 효과적이며 또한 저염식이 바람직하다는 점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였지만 계란을 피하는 것이 심장병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에는 많이 동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남녀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영양지식 수준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장병 예방에 운동과 저염식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에는 여성의

Table 2. Responses to belief statements about factors associated with heart disease (%)

Belief statement	Men			Women			χ^2 -test df=3
	Strongly agree, agree	Neither agree nor disagree	Strongly disagree, disagree	Strongly agree, agree	Neither agree nor disagree	Strongly disagree, disagree	
I feel that regular exercise can lower my risk of developing heart disease	87	9	4	91	7	2	$\chi^2=2.45$
I feel that having a thin or "lean" body can lower my risk of developing heart disease	51	29	30	56	20	24	$\chi^2=4.42$
I feel that limiting my intake of foods with large amount of animal fat, such as whole milk and some red meats, can lower my risk of developing heart disease	60	24	16	63	20	17	$\chi^2=1.65$
I feel that increasing my intake of polyunsaturated fats, such as vegetable oils and vegetable margarines, can lower my risk of developing heart disease	63	24	13	65	24	11	$\chi^2=1.49$
I feel that eating low-sodium or low-salt foods can lower my risk of developing heart disease	79	14	7	87	8	5	$\chi^2=4.33$
I feel that avoiding high-cholesterol foods can lower my risk of developing heart disease	62	27	11	70	21	9	$\chi^2=3.12$
I feel that avoiding eggs can lower my risk of developing heart disease	24	32	44	19	32	49	$\chi^2=2.11$

동의도가 남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line¹⁵⁾의 연구와도 비슷한 결과이다. 이렇게 남자보다 여자의 영양지식이 더 높은 것은 매스콤의 영향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는 이⁴⁾의 연구와도 비슷한 결과로서 라디오나 TV를 통한 영양교육의 주된 대상이 여성인 것으로 볼 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3. 식품 기호의 남녀 차이

식품 기호의 남녀 차이를 살펴 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단백질 식품 군에서 유의적인 남녀의 기호 차이를 보인 식품은 돼지고기, 생선, 두부, 콩 등으로 이러한 식품들은 남자들이 여자보다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남자들의 단백질 식품에 대한 선호 경향을 알 수 있었고 이는 남녀의 체격 조건의 차이로도 설명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와 같이 단백질 식품에 대한 남자의 기호도가 높은 것은 황³⁾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이다.

반면에 빵, 고구마, 감자 같은 탄수화물 식품에 대한

Table 3. Husbands' and wives' food preference variance

(%)

Food Group	Food Item	Husband			Wife			χ^2 -test df=3
		like	-	dislike	like	-	dislike	
Protein group	beef	51.3	46.1	2.6	47.4	48.7	3.3	1.47
	pork	43.4	44.7	11.8	30.9	59.2	9.9	7.76*
	chicken	38.2	47.4	14.4	30.9	58.6	10.5	6.73
	egg	27.6	57.9	14.5	20.4	65.8	13.8	4.40
	fish	73.7	25.0	1.3	57.9	34.9	7.2	11.81**
	shellfish	44.1	50.7	5.2	41.4	51.3	7.3	2.60
	tofu	45.4	47.4	7.2	27.6	67.1	5.3	13.63**
	beans	43.4	42.1	14.5	30.3	46.7	23.0	7.51*
ham	17.1	49.3	33.6	18.4	45.4	36.2	1.41	
Calcium group	milk	24.3	55.3	20.4	30.9	53.3	15.8	3.73
	yogurt	23.0	54.0	23.0	38.9	58.6	9.2	16.32***
	ice cream	18.4	47.4	34.2	31.6	43.4	25.0	9.91*
Vitamin & mineral group	bean sprout	34.2	56.6	9.2	40.8	55.3	3.9	6.16
	pumpkin	38.8	51.9	9.3	38.8	50.0	11.2	1.19
	spinach	44.1	49.3	6.6	44.7	48.0	7.3	1.03
	tomato	45.4	48.7	5.9	53.9	38.2	7.9	4.26
	cucumber	49.3	48.7	2.0	59.9	38.8	1.8	5.23
	carrot	36.8	53.9	9.2	37.5	50.0	12.5	1.74
	mushroom	48.7	44.7	6.6	46.7	44.1	9.2	1.46
	seaweed	41.4	50.0	8.6	67.1	28.9	4.0	22.31***
	strawberry	48.0	45.4	6.6	73.0	25.7	1.3	24.54***
	grape	41.4	50.7	7.9	66.4	28.3	5.3	20.75***
	persimmon	53.9	38.2	7.9	69.7	25.0	5.3	9.55*
	pear	61.2	38.8	0.0	59.9	37.5	2.6	4.06
	orange	40.8	51.3	7.9	63.2	30.3	6.5	17.00***
	melon	48.0	50.7	1.3	57.9	38.8	3.3	5.45
	water melon	60.5	38.2	1.3	77.0	21.1	1.9	11.83**
apple	51.3	45.4	3.3	61.2	34.2	4.6	4.80	
peach	53.3	40.1	6.6	68.4	26.3	5.3	8.76*	
Cabohydrate group	ramyon	15.1	49.3	35.6	11.2	52.6	36.2	2.06
	cooked rice	60.5	38.8	0.7	51.3	47.4	1.3	3.44
	bread	11.8	59.2	29.0	28.3	56.6	15.1	18.67*
	noodle	34.9	48.0	17.1	43.4	42.8	13.8	3.67
	potato	15.8	51.3	32.9	36.8	48.0	15.2	24.85*
	red bean	24.3	42.8	32.9	25.7	46.1	28.2	1.93
Fat & oil group	pine nuts	48.7	41.4	9.9	27.0	53.9	19.1	16.89***
	ginko nut	42.1	46.7	11.2	22.4	50.0	27.6	20.28***
	sesame	44.7	48.0	7.3	42.8	49.3	7.9	1.10
	butter	9.9	42.1	48.0	16.4	40.8	42.8	4.12
	magarin	7.2	40.1	52.7	15.8	41.4	42.8	7.63*

Table 3. Continued

Food Group	Food Item	Husband			Wife			χ^2 -test df=3
		like	-	dislike	like	-	dislike	
Beverage	rice drink	59.2	30.3	10.5	55.9	36.2	7.9	3.21
	fruit punch	56.6	34.2	9.2	47.4	44.7	7.9	5.06
	coffee	33.6	38.2	28.2	45.4	37.5	17.1	8.97*
	cola	12.5	50.7	36.8	19.1	40.1	40.8	6.77
	cider	15.1	55.9	29.0	14.5	46.7	38.8	5.86

*p<0.05, **p<0.01, ***p<0.001

기호도는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또한 미역, 딸기, 포도, 귤, 수박, 복숭아와 같은 야채 및 과일에 대한 기호도도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커피 같은 기호식품에 대한 기호도도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 야채, 과일, 빵, 고구마, 그리고 기호 식품에 대한 기호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잣, 은행과 같은 고열량식품에 대한 기호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남자와 여자간에는 식품기호에 대한 차이가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들 두 성간의 체격, 활동량, 성격 등 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4. 식행동의 남녀 차이

이는 가정내의 식생활에 관련된 행동 패턴에 남편과 부인의 성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Table 4. Husbands' and wives' food roles in the home

(mean+S.D.)

	Life-cycle stage							
	Husbands				Wives			
	stage 1	stage 2	stage 3	stage 4	stage 1	stage 2	stage 3	stage 4
Who decides food purchase	4.2±0.8	4.1±0.8	4.5±0.6	4.4±0.7	4.1±0.8	4.3±0.8	4.3±1.0	4.5±0.7
Who decides money spent on food	4.6±0.8	4.4±0.7	4.8±0.4	4.6±0.8	4.3±0.8	4.7±0.5	4.6±0.7	4.5±0.8
Who does the grocery shopping	4.3±0.8	4.3±0.9	4.7±0.6	4.6±0.7	4.0±0.9	4.4±0.9	4.7±0.7	4.6±0.7
Who should cook	3.8±0.8*	4.1±0.7	4.6±0.5	4.6±0.6	3.5±0.7	3.7±0.8	4.0±0.9	4.3±0.8
Who does cook	4.7±0.5	4.5±0.8	4.9±0.3	4.8±0.4	4.6±0.6	4.6±0.7	4.8±0.5	4.9±0.3

Mean scores based on the following response(categories; 1=husband always, 2=husband more than wife, 3=husband and wife about the same, 4=wife more than husband, 5=wife always)

Stage 1 : married couple, 29years or younger

Stage 2 : married couple, 30~39 years

Stage 3 : married couple, 40~49 years

Stage 4 : married couple, 50 years or older

이를 위해 “누가 식품을 구매하는가?” “누가 식품비를 결정하는가?” “누가 식품점에 가는가?”와 같은 식행위의 실제 수행자가 누구인가를 질문하고 또한 식사 관련 행위에 관한 인식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 나타난 수치는 식행동의 ordinal measures의 평균값이다. 그 결과가 가족주기별(20대~60대)로 보았을 때 모든 세대의 남편과 부인들이 식품을 구입하고, 식품구입비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의 대부분을 부인의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남편과 부인 모두 식료품점에 가서 식품을 사는 것을 부인의 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젊은 남편일수록 그리고 남편보다는 부인쪽이 이와 같은 식행위에 남자의 참여가 늘어나야 된다고 하였지만 이는 유의적이 아니었다. 즉 실제로 식생활을 담당하는 사람은 부인이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누가 조리를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편과 부인 다 특히 젊은 부인과 젊은 남편인 경우에 남자도 참여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주기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제 조리는 부인이 하고 있지만, 조리는 남편과 부인이 함께 해야 하는 행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젊은 부부에게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으로 본다면 앞으로의 식행동의 패턴에는 점차적으로 변화가 예고된다고 할 수 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식생활과 관련된 여러가지 식행동에 남녀의 역할 변동이나 성 차이가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는 1991년 10월과 11월에 걸쳐 천안과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20~60대의 부분 152쌍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영양지식 수준에 있어서 남녀 수준의 차이가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사실 분석에서는 주로 심장병과 관련된 영양지식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남녀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항목은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는 영양 지식 수준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장병 예방에는 운동과 저염식이 효과적이라는 영양지식을 여자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우리가 주로 섭취하는 5가지 기초 식품군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남녀 간에 어떠한 기호 차이가 있는가를 보았는데 이는 남녀간에 상당히 유의적인 기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아 남자들은 돼지고기,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식품과 잣, 은행과 같은 고열량 식품에 대한 기호가 높았으며 여자들은 빵, 고구마, 야채, 과일과 같은 식품과 커피, 아이스크림과 같은 기호식품에 대한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조리, 식품구입, 식품비 결정과 같은 식행동에 있어서 남녀 성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식품을 구입하고 식품비를 결정하는 것은 남편과 부인이 다 여성의 역할로 인정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조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누가 조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점에서는 남편도 함께 해야 하는 행위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는 젊은 부부에게서 더욱 그러한 경향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적이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20~60대의 부부는 식행위에서 서로 성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영양지식은 여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품 기호도도 남녀간에 다른 기호를 보이고 있으며 조리와 같은 식행동에서도 남녀간에 다른 인식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 결과는 남녀간에 서로 다른 성인병 패턴과도 연결되어 연구되어야 하겠으며 영양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에도 남녀 성 차이가 고려되어야 하겠다. 또한 미래의 식생활 패턴을 연구하는데에도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박명윤:한국영양학회지, 3, 21(1988)
2. 조미숙, 강남이:가정내의 식품분배에서 남녀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2(2), 31-39 (1989)
3. 황춘선, 박모라, 양이선:중년기의 식습관 및 기호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품화학학회지, 6(4), 351(1991)
4. 함인숙:주부의 식품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석사학위논문(1984)
5. 이혜옥: 개인의 가치관과 식생활과의 관계 분석, 이화여대석사학위논문(1984)
 6. Shafer, R. B. and Schafer, 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nd Food Roles in the Family, *Journal of Nutrition Education*, **21**, 119-126(1989)
 7. Hertzler, A.A. and Schulman, R.S.: Employed woman, dieting and support groups, *Journal of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82**, 785-788(1986)
 8. Hertzler, A.A. and Vaughan, C.E.: The relationship of family structure and interaction to nutrition, *Journal of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73**, 23-27(1979)
 9. Helmick, S.A.: Family living patterns - projection for the future, *Journal of Nutrition Education*, **10**, 4(1978)
 10. Cross, B., Hermann, R.O. and Warland, R.H.: Effects of family life-cycle stages on concerns about food selection, *Journal of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67**, 131(1975)
 11. Curtis, R.F.: Household and family theory on inequ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 168-183(1986)
 12. 문옥륜외: 성인병 실태조사보고서, 보건사회부 (1980)
 13. FAO한국협회: 한국인 영양권장량(1989)
 14.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McGraw-Hill Book Co.(1983)
 15. Kline, R.L. and Terry, R.D.: Difference in beliefs about heart disease risk factors between men and woman, *Journal of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86**, 786-788(1986)
 16. Shekelle, R.B. and Liu, S.C.: Public belief about causes and prevention of heart attacks, *JAMA*, **240**, 756(1978)
 17. Pierce, D.K. and Connor, S.L.: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coronary heart disease and nutrition in Oregon families, *Prev. Med.*, **13**, 390(1984)

(1992년 5월 30일 수리)